

남자 陰莖과 여자 乳房의 체질별 크기에 관한 연구

柳濟熏* · 金達來**

Study of constitutional difference on man's penis and women's breast

Ryu Je-hun, Kim Dal-rai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1. The backdrop of the study.

Accurate diagnosis of the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This study make research of man's penis and woman's breast, make observation these are significant or not in diagnosis of the constitution.

2. The process.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 was diagnosed by QSCC II, specialist. (86 persons, men 39, women 47), the men was taken measure of atony and excited length, thickness of the penis with a rule, thread. the women have a personal interview about her height, weight, the girth of the breast, brassiere cup size.

3. The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ae-eum-in is 28 persons(32.6%), So-eum-in 37 persons (43%), So-yang-in 21 persons(24.4%). Man's observation is insignificant statistically, woman's observation is insignificant statistically too.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本科4學年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體質醫學教室

초 록

研究背景

: 사상체질의학에서 체질의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제시된 동의수세보원의 체질진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체질간의 특성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체로운 주제인 남자 음경과 여자 유방크기의 체질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형태가 체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의성이 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方 法

: QSCCⅡ 등을 이용한 전문의 진단으로 체질이 구분된,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국사람 86명(남자 39명, 여자 47명)을 대상으로 각각 남자에게는 이완시 음경의 길이를 자를 이용하여 음경 뿌리부터 귀두部 끝까지 재계 하였고, 굵기는 실과 자를 이용하여 중간부분을 재계 하였으며, 홍분시 음경의 길이와 굵기를 같은 방법으로 재계 하였고, 여자에게는 개별면담으로 키, 몸무게, 가슴둘레, 브래지어 컵 사이즈를 조사하였다.

研究結果 및 結論

: 86명의 四象體質 類型은 太陰人 28명(32.6%), 少陰人 37명(43%), 少陽人 21명(24.4%)이었고, 陰莖과 乳房 크기 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男子 陰莖 길이의 體質의인 差異에 대한 有意性은 없었다. 단지 太陰人의 陰莖이 平素에 가장 길고 그 대신 가장 적게 늘어나며, 陰莖의 굵기는 弛緩時, 興奮時 전부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順序로 굵기대소가 進行되는 傾向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女子 乳房 크기의 體質의인 差異에 대한 有意性 또한 없었다. 단지 가슴둘레나 브래지어 컵 사이즈를 보았을 때, 예상대로 太陰人의 가슴이 가장 컸고, 少陰人과 少陽人의 比較에서, 가슴둘레 그리고 몸무게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율은 少陰人이 더 컸다. 브래지어 컵사이즈는 少陰人, 少陽人이 對等했다. 少陰人 女性의 가슴이 胸襟之包勢가 盛壯한 少陽人 女性의 가슴보다 작지 않다는 傾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陰莖의 大小와 女性 가슴의 大小는 四象體質別로 特徵의인 傾向性이 있다고 思料되고 많은 研究가 기대되었다.

I. 서 론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가 인간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등으로 나누고 각 體質의 性情,

病證, 診斷, 治療方法을 밝힌 학문이다.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辨證論에서 體質 辨證의 기준을 外形, 心性, 病證 등을 제시하였다. 그중 外形의 基準은 靜的 관찰방법인 體形氣像¹⁾과 動的 관찰방법인 容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p.495. 1997. 太陽人 體形氣像 腦佳頁之氣勢 盛壯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腦佳頁之氣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胸襟之包勢 孤弱

貌詞氣²⁾ 나낸다.

이러한 體質 구분의 根據는 肺脾肝腎의 각기 다른 장부의 이치에 따른 것이니 肺大而肝小者를 太陽人이라 하고 肝大而肺小者를 太陰人이라 하고 脾大而腎小者를 少陽人이라 하고 腎大而脾小者를 少陰人이라 하여 구분하였다³⁾. 이렇게 先天의으로 臟腑의 大小에 따라 서로 다른 체질이 있다 하였으니 이에 대한 病證 및 治法도 相異함을 논술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인간은 臟腑大小 뿐만 아니라 外形도 제 나름대로의 特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 體質診斷과 治療를 위해 많은 研究가 있어왔다.

東醫寶鑑 外形篇에 「男女는 乳와 腎이 根本이 된다⁴⁾」를 보면 남자는 腎으로써 重을 삼고 부인은 乳가 重하게 되어 上下가 不同하지만 性命의 根은 하나이다. 여인은 陰에 屬하고 陰이 極하면 반드시 스스로 아래에서 上衝하여 乳房이 大하고 陰戶가 縮하게 되며, 남자는 陽에 屬하고 陽이 極하면 반드시 스스로 위에서 아래로 下降하여 陰莖이 늘어지게 되고 乳頭는 縮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보려면 남자는 腎을, 여자는 남자의 腎만큼이나 乳를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⁵⁾은 "유방이 성적 능력과 연계되는 것은 유방이 여성의 성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乳腺의 구조가 남성의 辜丸 내부 구조와 비슷한 것처럼 유두는 남성의 페니스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陰陽의 조

화다. 남성에게 젖이 퇴화하였듯 여성은 음경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잡병편 중 辨證편에 "男女病因 모든 병 때 남자에게는 반드시 性生活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하고 여자에게는 먼저 月經과 妊娠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⁶⁾"고 하였다.

少陽人의 體形氣像이 胸襟之包勢가 盛壯하고 膀胱之坐勢 孤弱하며, 少陰人의 體形氣像이 膀胱之坐勢 盛壯하고 而胸襟之包勢 孤弱하며, 太陰人의 體形氣像이 腰圍之立勢 盛壯하고 而腦顛之氣勢 孤弱하다는 문구가 실제로 유의성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四象 體質別로 남자 陰莖의 길이, 굵기차이와, 여자 乳房의 크기를 살펴보아 체질별 形態學的 特徵을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II. 본 론

1.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상지대 한의과대학 재학생과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건강한 성인 男子 39명과, 건강한 성인 여자 47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성별, 연령별, 體質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p.495. 1997.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p.436. 1997.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 4)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281. 男女乳腎爲根本 男子以腎爲重 婦人以乳爲重 上下不同而性命之根一也 「直指」 女人屬陰 陰極則必自下而上衝故乳房大而陰戶縮也 男子屬陽 陽極則必自上而下降故陰莖垂而乳頭 縮也 「入門」
- 5) 신재용. 여체와 여성. 동화문화사. p.75. 1989.
- 6) 허준. 동의보감. 여강출판사. p.1184. 1994

〈표 1〉 男子 연령별 분포⁷⁾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전체
20대	11 (84.62%)	13 (76.47%)	8 (88.89%)	32 (82.05%)
30대	1 (7.69%)	3 (17.65%)	1 (11.11%)	5 (12.82%)
40대	1 (7.69%)	1 (5.88%)	0 (0%)	2 (5.13%)
전체	13 (33.33%)	17 (43.59%)	9 (23.08%)	39 (100%)

〈표 2〉 여자 혼인 여부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전체
미혼	6 (26.09%)	13 (56.52%)	4 (17.39%)	23 (100%)
기혼	9 (37.50%)	7 (29.17%)	8 (33.33%)	24 (100%)
전체	15 (31.92%)	20 (42.55%)	12 (25.53%)	47 (100%)

〈표 3〉 성별, 體質별 분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전체
남자	13 (33.33%)	17 (43.59%)	9 (23.08%)	39 (100%)
여자	15 (31.92%)	20 (42.55%)	12 (25.53%)	47 (100%)
전체	28 (32.56%)	37 (43.02%)	21 (24.42%)	86 (100%)

2) 體質 진단 방법

QSCC(Ⅱ), 望診, 問診, 切診, 聲音 등으로 사상 의학 전문가가 진단하였다.

2. 측 정

여자의 일대일 개별면담으로 브래지어 컵⁸⁾과 키, 몸무게를 기록하였고 가슴둘레도 측정하였으며, 男子의 경우 각각 개인의 힘으로 길이는 자를 이용하여 陰莖 뿌리 끝에서부터 귀두부 끝부분까지를 재게 하였고 두께는 실과 자를 이용하여 陰莖 중간부분을 측정하게 하였다.

3. 통계자료

SPSS/PC⁺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II. 결 과

1. 남 자

1) 일원분산분석결과

이완길이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7.28(0.69) 6.76(0.39) 7.29(1.31) 이며 유의확률 0.3961이 0.05보다 크므로 이완길이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홍분길이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12.95(0.85) 13.38(0.60) 13.39

7) 다른 논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소양인의 협조율은 저조하다.

8) 브래지어 컵은 AA컵이 가장 작은 사이즈이고 G컵이 가장 큰 사이즈이다. 단 AA컵은 초등학교생용이므로 A컵이 성인용으론 제일 작은 사이즈이다.

〈표 4〉 음경 길이, 굵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1그룹	2그룹	3그룹	F값	유의확률
이완 길이	7.28 (0.69)	6.76 (0.39)	7.09 (1.31)	.9502	.3961
홍분 길이	12.95 (0.85)	13.38 (0.60)	13.39 (1.51)	.6504	.5279
이완 굵기	9.34 (1.18)	8.97 (0.71)	8.27 (1.85)	.2370	.7902
홍분 굵기	12.31 (0.88)	11.55 (1.19)	11.42 (1.51)	.5451	.5845

1그룹-태음인, 2그룹-소양인, 3그룹-소음인

(1.51)이며 유의확률 0.5279가 0.05보다 크므로 홍분길이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이완굵기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9.34(1.18) 8.97(0.71) 8.27(1.85)이며 유의확률 0.7902이 0.05보다 크므로 홍분굵기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홍분굵기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12.31(0.88) 11.55(1.19) 11.42(1.51)이며 유의확률 0.5845이 0.05보다 크므로 홍분굵기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2) 판별분석(판별력만 분석함)

〈표 5〉 판별력의 분석

실제그룹	No. of Cases	예 측 그룹		
		1	2	3
Group 1	13	4(30.8%)	2(15.4%)	7(53.8%)
Group 2	9	2(22.2%)	4(44.4%)	3(33.3%)
Group 3	17	5(29.4%)	1(5.9%)	11(64.7%)

정판별력 48.72%

3) 판별분석 결과

판별분석 결과를 보면 태음인이 13명인데 태음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4명, 소양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2명, 소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7명이었다.

소양인이 9명인데 소양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4명, 태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2명, 소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3명이었다.

소음인이 17명인데 소음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11명, 태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5명, 소양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1명이었다.

따라서 $(13 \times 30.8 + 9 \times 44.4 + 17 \times 64.7) / (13 + 9 + 17) = 48.72$ 의 정판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여 자

1) 일원분산분석결과

가슴둘레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85.66(6.51) 80.00(6.03) 80.70(6.40)이며 유의확률 0.5253이 0.05보다 크므로 가슴둘레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키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158.8(5.60) 157.6(3.56) 158.2

〈표 6〉 가슴둘레, 키,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편차

	1그룹	2그룹	3그룹	F값	유의확률
가슴둘레	85.66 (6.51)	80.00 (6.03)	80.70 (6.40)	.6532	.5253
키	158.8 (5.60)	157.6 (3.56)	158.2 (3.11)	.1561	.8560
몸무게	60.83 (7.56)	53.00 (3.46)	50.65 (5.20)	.7434	.5024

1그룹-태음인, 2그룹-소양인, 3그룹-소음인

(3.11)이며 유의확률 0.8560이 0.05보다 크므로 키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몸무게에 대한 각 그룹(체질)의 평균과 S.D(표준편차)는 각각 60.83(7.56) 53.00(3.46) 50.65(5.20)이며 유의확률 0.5024가 0.05보다 크므로 몸무게에 대해 각 그룹(체질)은 차이가 없었다.

2) 판별분석(판별력만 분석함)

〈표 7〉 판별력의 분석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1	2	3
Group 1	15	5(33.3%)	0(0%)	10(66.7%)
Group 2	12	1(8.3%)	0(0%)	11(91.7%)
Group 3	20	1(5.0%)	0(0%)	19(95.0%)

정판별력 51.06%

3) 판별분석 결과

판별분석 결과를 보면 태음인이 15명인데 태음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5명 소양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0명, 소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10명이었다.

소양인이 12명인데 소양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0명 태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1명, 소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11명이었다.

소음인이 20명인데 소음인으로 정판별된 것은 19명 태음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1명, 소양인으로 오판별된 것이 0명이었다.

따라서 $(15 \times 33.3 + 12 \times 0 + 20 \times 95.0) / (15 + 12 + 20) = 51.06\%$ 의 정판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4) 가슴둘레/몸무게 비율

〈표 8〉 가슴둘레/몸무게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오차허용범위 (95%)
태음인	15	1.4438	0.1144	± 0.0561
소양인	12	1.577	0.1315	± 0.0450
소음인	20	1.5994	0.1077	± 0.0715

키는 세가지 체질이 거의 대동소이하여 제외시키고, 몸무게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가슴둘레/몸무게를 해보니 다른 부분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태음인이 가장 비율이 낮았고 몸무게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높았다. 단 평균은 오차허용범위 내에 있었다.

5) 브래지어 컵 사이즈

〈표 9〉 브래지어 컵 사이즈

		A 컵	B 컵	C 컵	전체
태음인	미혼	1 (6.67%)	5 (33.33%)	0 (0%)	6 (40%)
	기혼	5 (33.33%)	2 (13.33%)	2 (13.33%)	9 (60%)
소음인	미혼	11 (55%)	2 (10%)	0 (0%)	13 (65%)
	기혼	7 (35%)	0 (0%)	0 (0%)	7 (35%)
소양인	미혼	4 (33.33%)	0 (0%)	0 (0%)	4 (33.33%)
	기혼	6 (50%)	2 (16.67%)	0 (0%)	8 (66.67%)
전체	미혼	16 (34.04%)	7 (14.89%)	0 (0%)	23 (48.94%)
	기혼	18 (38.30%)	4 (8.51%)	2 (4.26%)	24 (51.06%)

우리나라 여성은 압도적으로 A컵이 많았지만 태음인은 B컵이 더 많았다. 소음인과 소양인은 2명씩을 제외한 전원이 A컵이었는데 소음인 2명의 B컵은 전부 미혼이었고, 소양인 2명의 B컵은 전부 기혼이었다. C컵은 47명중 두명 있었는데 전부 태음인 기혼 여성이었다.

IV. 고 찰

『내경』에 “前陰은 宗筋이 모이는 곳이며 太陰經脈과 陽明經脈이 합치는 곳이다”고 하였다. 주해에는 “宗筋은 배꼽을 끼고 아래로 내려가 前陰에서 합쳐졌다. 足太陰脾經脈과 足陽明胃經脈은 다 종근에 접해 있으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경』에 “宗筋이란 음부의 털이 난 곳에 가로놓인 뼈(횡골)의 아래위에 있는 힘줄이다” 하였다⁹⁾. 前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은 다 足厥陰經脈이나 督脈과 연관되어 있다. 『내경』에 “足厥陰經脈은 陰部の 털이 난 곳의 가운데로 들어가 전음을 지나서 아랫배로 올라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간경맥이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경』에는 또한 “督脈은 아랫배의 아래쪽에 있는 뼈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음정에 들어가 연결된 다음 陰

部를 따라 내려갔다. 남자는 陰莖을 따라 내려갔는데 회음부로 간 것은 여자와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督脈이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⁰⁾. 『영추』에 “음경과 고환은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며 음정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이고 津液의 길이다”고 하였다. 음경이 늘어진다(陰縱)는 것은 음경이 열을 받아서 축 늘어졌다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경이 줄어들다(陰縮)는 것은 陰莖이 찬 기운을 받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경』에 “족궐음경이 속으로 상하면 음경이 일어서지 못하고 추위에 상하면 음경이 줄어들며 열에 상하면 음경이 늘어졌다가 줄어들지 못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¹¹⁾.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 陰萎症은 다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간의 經筋이 상했기 때문이다. 『내경』에 “족궐음경맥이 병으로 하여 속으로 상하면 陰莖이 일어서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¹²⁾. 『傳青主男女科』에서는 “陽強不倒는 虛火가 上炎되어 肺氣가 下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知母 黃柏을 써서 복용하면 즉시에 消散한다. 그러나 음경이 줄어들 후 나중에 勃起가 되지 않으니 또한 좋은 처방은 아니다. 陽痿不舉는 평소에 琢削(뚫고 깎는 것)가 과하고 날마다 腎中의 水를 빼니 腎中의 火도 削亡하여 된 것이다. 대개

9)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486. 前陰屬宗筋

內經曰 前陰者 宗筋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 註曰 宗筋 挾臍下合於陰器 太陰脾脈 陽明胃脈 皆輔近宗筋故云合也. 宗筋 謂陰毛中 橫骨上下之豎筋也

10)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486. 前陰諸疾

前陰諸疾 皆由足厥陰與督脈 經曰 足厥陰之脈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是肝脈所過也 又曰 督脈者 起於小腹以下骨中央 女子 入繫挺孔 循陰器 男子 循莖下至竅 與女子等 是督脈小過也

11)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496. 陰縱陰縮

靈樞曰 莖垂者 身中之機 陰精之候 津液之道也. 陰縱 謂前陰受熱 挺長不收也. 陰縮 謂前陰受寒 入腹內也. 經曰 足厥陰之筋 傷於內則 不起 傷於寒則 陰縮入 傷於熱則 縱挺不收 是也

12)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496. 陰痿

陰痿 皆耗散過度 傷于肝筋所致. 經云 足厥陰之經其病 傷于內則 不起 是也.

水가 去하면 火 또한 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 마치 한가죽이 있는데 부엌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때서 밥을 하겠는가? 반드시 물이 있어야 후에 연료를 사용하여 밥을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은 즉 솥이 비게 될 것이다¹³⁾라 하였다.

음경은 음경해면체 두 개와 요도해면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성적으로 흥분할 때는 평소보다 8-15배나 많은 혈액이 스펀지 같은 음경해면체의 빈 공간으로 흘러들어가 공간을 메운다. 음경은 대개 13살 때부터 현저히 크기 시작해서, 16세때 급속히 커지며, 21살쯤에는 그 크기가 완전해진다. 남자는 15세가 신장완성기, 17세가 체중완성기, 24세가 성의 성숙완성기가 된다¹⁴⁾. 음경이 크기는 인종과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흑인종, 백인종, 황색인종의 순서대로 크며 여성의 질 또한 이와 비슷한 순서로 보면 된다. 동양권의 황인종의 경우 보통 남성의 음경은 평상시 길이가 6-8cm 둘레가 6-9cm정도이나 勃起가 되면 길이는 9-14cm, 굵기는 10-14cm까지 커진다. 이같은 陰莖의 크기 변화는 전체남성의 70%가 비슷하며 나머지 30%는 약간의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음경의 크기를 굳이 의학적으로 기준할 경우 왜소한 페니스는 평상시 길이 3.5cm, 둘레 5cm정도 이하를 말하며 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길이 6cm, 굵기 7cm이하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음경의 크기는 發育不振과는 달리 표현되고 있으며 여성에게 임신시키는 능력과도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성생활이란 성기왜소 콤플렉스¹⁵⁾를 극복하는 일도 중요하나 발기력을 돋구어 일정시간 이상 발기를 지속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데 평소 체력관리 등을 통해 스테미너를 길러 신체의 노화를 막아야 한다. 남성의 발기력은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물론 같은 연령군에 속한다하더라도 개인의 체력조건, 건강관리에 따라 격차가 얼마든지 달리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평상시 음경은 길이 7.4cm, 지름 2.8cm, 둘레 8.3cm, 용적 40.6cc 가량이다가 발기가 되면 길이 11.7cm, 지름 4.1cm, 둘레 11.5cm, 용적 143.6cc로 늘어난다. 그리고 복벽과의 각도는 20도가 된다.¹⁶⁾ 일반적으로 고환이 커야만 그 기능이 왕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고환의 크기가 15ml에서 30ml 사이의 정상 범위라면 그 기능에는 대차가 없다. 즉

13) 傅青主. 傅青主男女科. 대성문화사. pp.130-131 1995.

此虛火炎上 而肺氣不能下行故耳. 藥用黃柏 知母 煎湯飲之 立時消散 然自倒之後 終年不能振起 亦非善治之法也. 此症 乃平日過於琢削 日說其腎中之水 而腎中之火 亦因之而削亡 蓋水去而火亦去 必然之理 有如一家人口廚下無水 何以爲炊? 必有水以後取柴炭以煮飯 不則空鑪也.

14) 이회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생식의학 및 가족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p.87. 1988

15) 임승헌 비뇨기과 원장. 원포인트 性클리닉. 매일경제 99년 6월 12일. 거대한 '남성'에 대한 동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남성의 음경이 生命을 창조할 수 있는 신과 같은 能力을 가진 것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우리나라도 고을마다 거대한 남근석을 세워놓은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작은 고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많다. 실제 남성의 90% 이상이 한 번쯤 자기 성기가 작다고 느낀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男子의 성기가 12-13세부터 눈에 띄게 성장해 21세에 이르면 완성된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크기는 7.4cm, 발기 때는 12.76cm로 알려져 있다. 선천성 왜소 음경은 이완되어 있을 때 정상인보다 2cm 이상 작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발기 때 7cm 이상만 되면 성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6) 신재용. 男性과 힘의 한방. 보고싶은책출판사. p.66

고환의 대소와 남성호르몬의 多寡에는 평행적 관련성이 없다. 고환의 경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쭈글쭈글하고 유연해져서 자연히 그 크기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서구인의 예를 들면 20대의 평균 고환 크기가 28.3ml 이던 것이 30대에는 27.2ml, 40대에는 27ml, 50대에는 26.4ml, 60대에는 24.3ml, 그리고 70대에는 21.6ml로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¹⁷⁾.

코가 크면 陰莖도 크다는 소문이 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은 남녀 모두 코이고 남자는 성기, 여자는 가슴이다. 사상의학 性理臨床論¹⁸⁾을 보면 태음인은 얼굴면적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소양인은 얼굴면적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편이거나 예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대한 곡해를 보면 코의 크기와 음경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⁹⁾

陰莖의 길이를 각각 개별적으로 측정하게 했으므로 客觀性이 缺如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설문으로 인한 통계수치상으로는 평소 음경길이가 태음인)소음인)소양인 순이었다. 단 소음인은 불규칙한 편차를 보였다. 홍분시 음경길이는 소음인,

소양인)태음인 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소음인이 보통 虛證이 많은 체질이고, 손도 작으므로²⁰⁾ 음경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체질에 비해 음경이 작지 않았다. 소음인의 腎大脾小한 특성의 영향이라고 사료되었다. 평상시와 흥분시 길이 차이의 비율은 평소길이의 반대순서였다. 평상시에 길이가 길면 조금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경 굵기는 평상시와 흥분시 전부 태음인)소양인)소음인 순서였다. 개인적으로 태음인이 가장 견장한 골격과 비대한 체격을 가진 型²¹⁾이므로 음경 굵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가슴은 생명의 원천으로, 또 남녀를 구별하여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심볼로 여겨져왔다. 여성의 乳房은 사춘기에 급격히 부풀어 올라 원추 형태가 되며, 정상적인 유방의 발육은 정신건강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유방의 크기는 인종, 시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하나에 170cc정도가 표준이다. 하지만 유방이 작거나 혹은 크더라도 몸전체와 균형이 맞아 조화로운 곡선미를 보인다면 아름답다. 미스코리아나 미인대회에 나오는 여성들이 가슴 사이즈는 대부분 힙들레와 같은 수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인의 몸

17) 두호경. 동의신계학. 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pp.586-587. 1993

18) 김주. 성리임상학. 대성출판사. p.42. 1997. 鼻形

태음인 : 통통하고, 얼굴전체의 면적에서(下顎의 모양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편이다. 혹은 납작하면 서 넓은 경우도 있다. 或 매부리코

소음인 : 대체적으로 코끝에 앙두를 달린 듯 하다.

소양인 : 코끝이 대체적으로 예리하고 얼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편이나 혹은 크면서 예리한 경우도 있다. 或 들창코

19) 이희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생식의학 및 가족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p.97. 1988

20) 김주. 성리임상학. 대성출판사. p.44. 1997. 手形

태음인 : 長大而平面狀으로 소양인에 비하여 肉이 있는 편이다.

소음인 : 短大而曲線狀으로 안정감이 있다. 짧거나 긴 경우도 있다.

소양인 : 골격이 굵고 윤기가 없으며 肉이 없어 뼈만 있는 것 같다.

21) 신천호. 문답식한의학개론. 成輔社. p.508. 1990

매는 가슴과 힙의 사이즈가 같아야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서양인들의 골격에서 볼 때 이상적인 모양이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머리가 크고 허리가 길고 허프가 큰 편이며, 골반과 가슴통이 아담하므로 자신의 힙둘레보다 10cm 정도 적을때가 이상적이다²²⁾. 유방의 생리²³⁾를 보면, 여성은 연령에 따라 여성고유의 생리변화를 가져온다. 유방도 이에 상응하는 해부 생리적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은 유방이 풍부하게 발달하여 여성고유의 곡선미를 형성하는 동시에 乳汁을 분비하여 유아를 양육하는 생리상의 기능을 구비한다. 소아기에는 남녀의 유방이 별 차이가 없으나 사춘기가 되면 여성의 유방은 주로 지방층과 결합조직이 증식하여 볼록하게 膨隆하기 시작하며 특히 월경전에는 더욱 膨滿하게 되고 약간의 자발통을 일으킨다. 임신 2개월쯤 되면 유방은 상당히 비대해지고 初乳가 분비되며 乳輪에는 색소가 침착하고 乳頭도 커진다. 임신말기에는 이와같은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수유기에는 腺胞가 증식하며 수유를 중단하면 유선상피가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노인이 되면 腺葉은 위축하고 間質은 오히려 증식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乳房이 탄력을 잃고 下垂하나 반대로 지방이 증가하며 유방이 커지는 수도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모두 난소 및 내분비선의 주기성변화에 상응하는 현상이다. 단계는 말하기를 “유방은 양명경에 속하고 乳頭는 厥陰經에 속한다²⁴⁾”하여 유방과 유두가 木剋土의 相互剋制關係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는 유선조직의 발육으로 유즙이

생산되는 기전과 유즙이 분비되는 기전이 상호극제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慎齊에 의하면 “婦人是血로 用事하여 上으로 乳汁을 생하고 下로 乳수를 생한다. 血의 소재는 脾胃에 근본이 있고 음식의 精米가 運行하여 유즙을 생하는 것이니 產後에 脾胃의 氣가 왕성하면 血도 왕성하여 유즙이 많고 비위의 氣가 衰하여 血이 減하면 유즙도 少하다”하였다. 즉 임신중에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난소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이 태반에서도 분비되므로 이것에 의하여 유선조직이 發育되어 유방이 더욱 커지고 분만후에는 뇌하수체전엽의 Proactin이 減少하지만 에스트로젠 분비가 늘어나 유즙을 분비하는데 이들 양 호르몬은 서로 길항하는 관계에 있다. 이 외에 뇌하수체후엽의 ‘옥시토신’은 유선조직을 싸고 있는 평활근을 수축하며 유즙분비를 촉진하고 또 부신피질호르몬, 갑상선호르몬 등도 유즙분비에 관여하나 부신피질의 Adrenalin은 오히려 뇌하수체에 길항하여 유즙분비를 억제한다. 이상은 유방의 생리기능이 성기 및 內臟의 생리현상과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즙을 생하는 血은 肝에 저장되고 脾에서 統括한다. 그러므로 단계는 “조양을 부주의하여 忿怒所逆하든가 鬱悶所遏하든가 厚味所釀하는 등으로 厥陰肝木의 氣가 不行하면 厥陰에 속하는 乳房의 氣가 不通하여 유즙이 분비되지 않으며, 따라서 양명의 열이 沸騰하여 發熱 화농 혹은 瘡瘍 등 乳病을 發生한다²⁵⁾” 하였다. 부인이 산후에 乳가 點滴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乳管이 막힌 것으로 여기니 누가

22) 김수신. 김박사가 권하는 신세대 성형수술. 행림출판사. p.103

23) 송병기. 한방 부인과학. 행림출판사. p.270. 1991.

24) 주단계. 丹溪醫集 格致餘論. 人民衛生出版社. p.26

乳房 陽明所經. 乳頭 厥陰所屬.

25) 주단계. 丹溪醫集 格致餘論. 人民衛生出版社. p.26

乳子之母 不知調養 忿怒所逆 鬱悶所遏 厚味所釀 以致厥陰之氣不行 故竅不得通而汁不得出. 陽明之血沸騰 故熱甚而化膿. 亦有所乳之子 膈有滯痰 口氣燉熱 含乳而睡 熱氣所吹 遂生結核. 於初起時 便須忍痛. 揉令軟吮 吮令汁透 自可消散. 失此不治 必成癰癤

이것이 氣血이 兩涸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무릇 乳는 氣血이 化하여 생성하는데 血이 없으면 乳汁을 만들 수 없고 氣가 없으면 또한 乳汁을 만들 수 없으니 두 가지 중에 血이 乳를 化하는 것 보다 氣가 化함이 더욱 빠르다²⁶⁾. 乳癰은 膽胃 二腑에 속하고 熱毒에 屬하므로 氣血이 壅滯한 것이고 乳巖은 肝脾 二臟에 屬하며 鬱怒하거나 氣血이 虧損한 것이다²⁷⁾. 남자의 젖몸에 생긴 병과 부인의 젖몸에 생긴 병은 조금 다르다. 여자는 肝과 胃를 상해서 젖몸에 병이 생기고 남자는 肝과 腎을 상해서 생긴다. 대개 성을 내서 화가 일어나고 성생활이 지나쳐서 肝이 마르고 腎이 허약해져도 역시 젖몸울이 생기거나 붓고 아픈게 된다.²⁸⁾

여자는 生長發育에서 청춘이전의 성숙단계에는 腎의 작용이 주가 되나 月經이 시작되면서부터의 생육기에는 肝의 작용이 주가 된다. 肝은 藏血하는 기능이 있어 혈량에 대한 조절이 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肝血이 충실하면 衝脈에 下注하여 血海가 榮溢하게 된다²⁹⁾. 衝脈은 氣衝穴에서 기시하여 幽門穴

에서 중지한다. 배꼽을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서 퍼진다. 泌尿生殖器疾患과 乳房病에 有效하다³⁰⁾. 하여 衝脈과 乳房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生血하는 기전은 中焦에서 氣를 받아 汁을 모아 붉은 것으로 변화시키니 이것이 혈이 된다. 지금 가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부인의 乳汁은 곧 비위에서 음식을 소화시켜 이에 中焦가 기를 받아 그것을 모은 汁이다. 부인이 乳汁이 나오면 月經이 不行한다. 血은 乳인 것이다³¹⁾.

假如 肺大肝小者는 陽이 陰보다 實하고 氣가 血보다 多하여 瀉氣를 爲主로 하여야 하며, 肝大肺小者는 陰이 陽보다 實하고 血이 氣보다 多하여 瀉血을 爲主로 하여야 하며, 脾大腎小者는 陰이 陽보다 虛하고 血이 氣보다 少하여 補血을 爲主로 하여야 하고, 腎大脾小者는 陽이 陰보다 虛하여 氣가 血보다 少하여 補氣를 爲主로 하여야 한다. 四象方은 氣實한데 瀉血약을 써도 안되고 血實한데 瀉氣약을 써도 안되는 등 그 사람 그 약을 쓰는 것이 특성이다³²⁾.

胸襟之包勢가 盛壯한 少陽人 여성이 少陰人 여성

26) 傅青主. 傅青主男女科. 대성문화사. p.291. 1995.

產後 氣血兩虛 乳汁不下

婦人產後絕無點滴之乳 人以爲乳管之閉也. 誰知是氣與血之兩涸乎? 夫乳乃氣血之所化而成也 無血 固不能生乳汁 無氣 亦不能生乳汁 然二者之中 血之化乳 又不若氣之所化爲尤速.

27) 葉天士. 葉天士女科. 대성문화사. p.293. 乳癰乳巖

乳癰屬膽胃二腑熱毒 氣血壅滯. 乳巖 屬肝脾二臟 鬱怒 氣血虧損.

28)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412.

男女乳疾不同

男子乳疾 與婦人微異者 女損肝胃 男損肝腎 蓋怒火, 房勞過度 以致肝燥腎虛 亦能結核 或令腫痛.

29)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경희대학교출판국. p.286. 1993

30) 침구 경혈학교실편저. 침구학. 집문당. 上권 p.745. 1988

衝脈者 起於氣衝 終於幽門 然衝脈並足少陰之經明矣. 挾臍上行至胸中而散 此爲病 令人逆氣裏急.

衝脈主病 泌尿生殖器疾患 乳房病 有效

31) 唐宗海. (국역)혈증론. 일증사. p.16. 1997

生血之機有如此者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爲血 今且可見者 婦人乳汁即脾胃飲食所化 乃中焦受氣所取之汁也 婦人乳汁 則月水不行 蓋血即乳也

3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2기 졸업준비위원회. 한국의 체질이론. 대성문화사. p.42. 1994

보다 가슴이 큰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少陰人 여성의 가슴을 少陽人 여성과 대등한 정도로 키울 수 있는 것은 少陰人의 생애에 유리한 신체구조³³⁾와, 혈이 부족한 少陽人의 체질상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少陰人의 체형과 외모에 “소음인은 上體보다는 下體가 충실한 편이나 사실 少陰人은 어느 체질보다도 上下體가共に 균형을 이루고 있다³⁴⁾”고 하였으므로 가슴이 어느정도 있어야 큰 엉덩이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四象人의 氣運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體形氣像의 형태적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살펴 진단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사람 86명(남자 39명, 여자 47명)에 대해 남자는 陰莖 길이, 굵기를 여자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브래지어 컵 사이즈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남 자

음경의 길이의 체질적인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다. 단지 그럴수 있다는 경향성만 짐작할 수 있었다. 太陰人의 陰莖이 평소에 가장 길고 그 대신 가장 적게 늘어나며, 少陰人과 少陽人은 태음인에 비해 평소 길이가 짧지만 잘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음경의 굵기는 이완시, 흥분시

전부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순서로 굵기대소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여 자

가슴둘레나 브래지어 컵 사이즈를 보았을 때, 예상대로 太陰人의 가슴이 가장 컸다. 少陰人과 少陽人을 비교해보면 가슴둘레에서도 少陰人이 약간 더 넓었고, 몸무게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비율도 少陰人이 더 컸다. 단 브래지어 컵사이즈는 少陰人은 20명 중 B컵이 두명이었으나 少陽人은 12명중 B컵이 두명이었다. 이때 두명의 少陽人은 전부 既婚이었고 두명의 少陰人은 전부 未婚이었다. 少陰人 여성의 가슴이 胸襟之包勢가 盛壯한 少陽人 여성의 가슴보다 클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陰莖의 대소와 여성 가슴의 대소는 사상체질별로 특징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본다. 향후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집문당. p.436, p.495. 1997
2. 신재용. 여체와 여성. 동화문화사. p.75 1989
3. 許浚. 東醫寶鑑. 여강출판사. p.1184. 1994
4. 허준. 東醫寶鑑 外形篇. 대성문화사. p.281, p.412, p.486, p496.
5. 傅靑主. 傅靑主男女科. 대성문화사. pp.130-

33) 송일병. 만화로 보는 사상의학. 두산동아출판사. p.78. 1996.

소음인은 엉덩이가 크고 자궁의 발육이 좋은 체형이므로 아이를 잘 낳는다.

34) 신천호. 문답식한의학개론. 成輔社. p.509. 1990

131. 1995
6. 김주. 성리임상학. 대성출판사. p.42. 1997
7. 신재용. 男性과 힘의 한방. 보고싶은책출판사. p.66
8. 이희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생식의학 및 가족계획. 서울대학교출판부. p.87. p97. 1988.
9. 두호경. 동의신계학. 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사. pp.586-587. 1993.
10. 김수신. 김박사가 권하는 신세대 성형수술. 행림출판사. p.103
11. 송병기. 한방 부인과학. 행림출판사. p.270. 1991.
12. 주단계. 丹溪醫集 格致餘論. 人民衛生出版社. p.26
13. 葉天士. 葉天士女科. 대성문화사. p.291. 1995
14. 신천호. 문답식한의학개론. 成輔社. p.508. 1990
15. 대한동의생리학회편. 동의생리학. 경희대학교출판국. p.286. 1993
16. 침구 경혈학교실편저. 침구학. 집문당. 上권 p.745. 1988
17. 唐宗海. (국역)혈증론. 일중사. p.16. 1997
18.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2기 졸업준비위원회. 한국의 체질이론. 대성문화사. p.42. 1994
19. 송일병. 만화로 보는 사상의학. 두산동아출판사. p.78. 1996